

서울 동관왕묘(東關王廟)의 공간구성에 대한 소고(小考)

김형석* · 정우진* · 심우경**

*고려대학교 대학원 환경계획 및 조경학전공 · **고려대학교 조경학연구소

I. 서론

서울시 종로구 송인동에 위치한 동관왕묘(東關王廟)는 중국 촉나라의 장수 관우를 배향한 사당으로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 원병을 파견한 명나라 신종 황제의 요청으로 인해 선조 34년(1601년)에 창건되었다. 동관왕묘는 중국의 기술자가 조선의 장인과 협력하여 영건한 이른바 한·중 공공협력이라는 선례를 남겼던 유적이다¹⁾. 당시 명 황제가 파견한 기술자를 포함해 총인원 2,400명이 투입되었다는 기록이 말해주듯(장경희, 2013: 94), 동관왕묘의 건립은 양국 정부의 우호를 공고히 하고, 국토수호의지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함께 배향의 대상이 관우임을 반영하듯, 동관왕묘는 건물의 형식을 비롯해서 배치된 공간구성 요소에서 중국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관련 사료를 통해 임란 직후에 건립된 동관왕묘 공간구성의 특성을 구명하고, 특징적인 공간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II. 본론

1. 공간구성

동관왕묘는 국가 제례를 위한 공간으로서 일반적인 사묘가 갖추어야 할 공간구성 요소들이 충족되어 있다. 기본 배치는 조선시대 제례공간의 구조와 마찬가지로 주요 건물들이 남북 중축선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의 배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대칭적 배치는 정전 영역에서 두드러진다. 이러한 배치는 정전 영역에 질서정연함, 정형성을 부여하는 장치가 되고 있으며, 중축선을 강조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간주된다.

공간구성은 크게 진입영역, 의례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진입영역은 평소에는 수직하는 관원들의 공간으로 이용되었던 만큼 공간적 위계로 볼 때 가장 하위의 장소가 되며, 제례시에는 품계가 낮은 관리들이 반차하여 서 있거나 제례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이용되었다. 특히 요소로는 진입영역의 어막대, 의례영역 정전 월대의 취병을 들 수 있는데, 특히 취병은 월대의 모서리 부분에 식재기반을 조성하여 향나무를 식재하였다.

2. 어막대(御幕臺)

현재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그 위계를 상실하였지만, 어막대는 왕의 행차시 대차(大次)를 설치하던 중요한 공간이다. 어막대의 위계는 석단의 높이로도 표출되어 있다. 어막대는 장대석을 3폐(陛)로 쌓았는데, 이는 정전의 월대의 수준과 같다. 즉, 어막대는 진입영역에 위치하여 하위의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관우의 소상이 모셔진 정전과 같은 높이로 조성함으로써 친림공간의 위상을 표현했던 것이다.

한편, 『해동성적지』 「동묘도」와 「남묘도」에 나타난 어막대는 위에 2폐 높이의 별단이 조성되어 있는 바, 위계의 표현에 있어 모순된 구성으로 판단된다. 즉, 어막대는 실제로 총 5단(폐)의 규모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 정도 높이라면 임금이 입어해 있을 경우, 관우의 소상보다 높은 곳에 위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은연중 관우보다 조선의 국왕을 높이려 했던 조치로 해석된다. 어막대에 나타난 이러한 구성이 초창된 선조 때의 것인지, 아니면 숙종 연간에 정비된 결과인지는 사료에서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동관왕묘가 위계를 표현하는데 있어 평면과 입면에 있어 다른 양상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동관왕묘에는 표면적으로는 관우를 배향하는 정전을 평면상의 중심부에 놓되, 입면적으로는 임금 자신의 상징적 공간을 보다 높이 두었던 이중성이 정전과 어막대의 위계 표현에서 엿보인다.

어막대의 현 상태는 전면에 2단의 계단과 석물 3기가 남아 있는 정도이나, 본래는 정전 다음으로 화려하게 치장된 곳이었다. 1901년 촬영한 사진을 살펴보면, 현 상태보다 지면이 훨씬 낮았으며, 양쪽에는 신하들이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3단의 계단까지 확인되지만,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 또한 과거 사진에서는 어막대로 향하는 어도의 재료가 전돌인 점, 운각대우석(雲刻大隅石)이 조각된 계단, 그리고 정교한 서수(瑞獸)상 등을 통해 왕이 머무르는 장소로서의 위계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문제는 과거 임금의 위상을 표현하는 의장이 곳곳에 묻어있던 어막대가 근래의 정비공사에서 화장실로 개조된 것이다. 심지어 어막대와 담장 변의 식재지를 연결시켜 놓고, 어막대 동변의 장대석까지 뜯어 경계석으로 사용하는 등, 어막대의 본래 위상과 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이다.

3. 취병(翠屏)

1) 월대(月臺) 취병

월대 취병은 월대 남측 양 모서리 부분에 향나무 식재지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에 취병을 세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행스럽게 이 모습은 사진으로 남아 있었다.

체코인 브라즈(Vraz)가 1901년에 촬영한 사진을 보면, 정전 월대 위에 네모반듯하게 정돈된 취병이 나타난다. 여기서 취병의 지지대로 사용된 부재가 일부 포착되어 있으며, 취병의 식물 소재는 현재 월대 위에 남아 있는 수목과 같은 향나무인 점이 확인된다. 주목되는 점은 취병이 월대의 높이와 비교해서 그보다 더 높게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진에서 취병의 모서리에는 한 두 그루의 향나무가 자연형으로 식재되어 있는데, 향나무는 이미 지붕 처마선을 넘어 자라 있다. 이러한 형식은 취병의 조성에 있어 흔치 않은 사례가 되고, 월대 위에 대경목을 식재하는 등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겠으나, 아무래도 취병의 한 장식기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일대의 주요 구성요소의 관계, 이를테면 정전을 중심으로 동무와 서무가 대칭적으로 배치된 점, 신도 계단 좌우에 대칭되는 계단과 한 쌍의 용두, 그리고 월대 양 측에 설치된 취병이 대칭관계로 구성되어 있는 각 요소의 상관성은 대식된 향나무의 용도에 대한 단서가 된다.

한편, 1901년 이전의 월대 취병의 상황은 1904년 촬영 사진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그러나 1915년에 동관왕묘 정전의 전경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취병 양단의 향나무는 경관수로 활용되고 있고, 취병은 이미 철거되어 있다. 하지만 취병의 소재로 사용된 수목들은 대부분 존치되어 있는데, 취병이 있던 곳을 증명이라도 하듯 일정한 높이로 자라 있고, 취병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기에 수간부의 가지는 가지치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보다 시점이 지난 상황, 즉 일제 강점기 어느 시점에 촬영된 것으로 여겨지는 사진을 보면, 이 수목들 중 일부만이 남아서 생장하고 있으나, 그와는 대조적으로 월대 서쪽에는 어느 정도 취병의 외형이 유지된 채 수벽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는 서쪽 취병 식재지에 4주, 동쪽에 2주의 향나무가 남아 있으며, 가장 큰 것은 수고가 약 14m에 이른다.

2) 어막(御幕) 취병

월대취병과는 달리 어막(대)취병은 어느 위치에 설치되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상기한 사례처럼 대(臺) 위에 별도의 식재기

반을 조성했을 수도 있으나, 원 상태를 가늠할 사진이 남아 있지 않아 사용된 식물소재와 설치 위치를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당대의 비교 가능한 유사사례, 즉 의례공간에 조성된 취병의 다른 사례로서, 문희묘에서 어제실을 두르고 있었던 취병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문희묘는 취병이 예제공간에서 광범위하게 조성되었던 정조 연간에 건립되었고, 임금의 입어처를 위요하고 있던 제향공간의 취병이란 점에서 동관왕묘 어막대의 취병과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그러면 동관왕묘 어막취병도 문희묘의 사례처럼 대 밖의 공간에 묘역의 일부분을 구획하는 취병을 설치했을까? 다른 가능성도 있다. 『해동성적지』 「동묘도」를 보면 어막대 위에 또 다른 단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로 축석되어 있다. 이것은 단과 어막대 사이에 취병을 조성했을 여지를 주는 부분이다. 또한 1901년 어막대를 촬영한 사진을 보아도 현 상태와 같이 어막대 위가 모두 흙으로 덮여 있던 점도 이러한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준다.

III. 결론

본 연구는 동관왕묘의 공간구성에 대한 것으로 공간구성 요소인 어막대와 취병의 특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첫째, 동관왕묘는 성격상 중국의 영향이 공간구성에 나타나며, 주요 건물들이 남북 중축선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의 배치를 이루고 있었다.

둘째, 동관왕묘는 숙종 이후 영조, 정조가 관우의 충성심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등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주 친림하였으며, 어막대 등에서 왕권을 상징하는 요소를 찾아 볼 수 있었다.

셋째, 월대취병은 제향공간에 어울리는 향나무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월대 상부에 식재기반을 만들어 조성된 것이었다. 또한 사람 키를 넘는 규격으로 조성되어 차폐와 경계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구성이었다. 어막취병 역시 대 밖이나 상부에 향나무를 이용한 취병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주 1. 『동아일보』 삼국지 관우의 묘가 왜 국가지정 문화재가 되었을까(2013. 10.28. 23면)

참고문헌

1. 동아일보, 2013. 10. 28. 23면.
2. 장경희(2013). 동관왕묘의 조각상 연구. 문화재 46(3): 94-112.